



현장에서 본 AI



AI 시료 특판
김요한 부장

1. 서문

작년 12월 말, 천안과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2008년 이후 3년여 만에 한반도에 다시 고병원성 AI가 등장했다. 천안, 익산에 이어 전남 영암에서도 발생하더니, 영암과 나주의 오리 농장을 위주로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중부와 북부를 휩쓸고 있는 구제역에 이어 남부지방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으로써, 국토 전역이 가축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 상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가슴 한구석이 무겁기 그지 없다. 특히 전남 나주와 영암은 닭과 오리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역대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던 2008년의 조류인플루엔자를 되짚어 보면 발생 농가 33건에 813만 8천여 수를 살처분했고,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6,324억에 달했다. 2008년에는 AI특별 방역 대책기간이었던 동절기를 넘겨 방역에 느슨해질 시점에서 발생하여, 더 이상 고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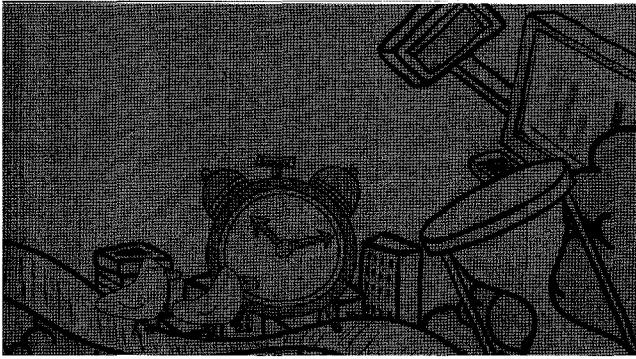
성 AI가 겨울에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이번 사태가 2008년의 사례와 비교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구제역으로 인해 국토 전체가 방역에 매우 민감해 있던 시기이고, 야생 조류에서 이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발병을 막지는 못했지만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만큼, 2008년과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과거 발생한 고병원성 AI를 보면, 발생한 당시의 피해도 피해지만 발생 이후에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번 AI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AI의 확산을 막는 것에 주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종식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살펴 보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2. AI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

1) 소비의 위축



2003년, 2006년, 2008년 모두 고병원성 AI의 발생 이후 소비의 감소가 뒤따라 왔다. 고병원성 AI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가금 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례로 보았을 때 이번 고병원성 AI의 발생 이후의 소비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관건은 소비심리의 위축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이다. 고병원 AI의 피해 범위와 종식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황상 소비 감소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언론의 관심이 고병원성 AI보다는 구제역에 맞춰져 있다. 알다시피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과 피해로 모든 언론의 관심은 구제역에 있고 상대적으로 AI 발생에 대한 관심은 비중이 작다. 언론의 구분별 보도가 소비 위축을 가장 크게 조장하는 원인인 점을 볼 때 고병원성 AI만 단독으로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보도 외에 소비자의 학습효과도 또 하나의 이유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전 발생한 고병원성 AI를 겪어 오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금 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소

비자들이 직접 체득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가금 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이전 발생 때보다는 크지 않아 과거와 같은 큰 혼란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로 고병원성 AI의 종식 시점이 중요하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 언론의 주목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져, 과거 발생 상황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1년은 역대 최대의 소비량을 보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 고병원성 AI가 늘어날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 위축에 의한 이 중고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 종식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성수기의 공급 부족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다가올 성수기의 공급 부족 사태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전남 영암과 나주에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이 지역은 다수의 오리 사육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번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303만 수(1.17. 현재)를 넘어선 가운데 이중 오리가 223만수 이상 살처분 되었다.

이는 전남에서 사육 중인 오리의 1/3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우리 나라 전체 오리 사육 수수의 20%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고병원성 AI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오리를 살처분하여 매몰하면서 5월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수기에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전만큼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재입식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입식 후 출하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야 시장에 오리가 공급될 수 있다. 즉 5월 이후에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고 볼 때, 자칫 시기를 놓쳐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오리고기 품귀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오리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양의 오리고기가 수입되어 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오리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0년 5~6월 사이의 오리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고병원성 AI로 오리의 수가 부족해진 올해는 얼마든지 더 많은 양의 수입고기가 들어 올 수 있다. 수입 오리고기에 수년간 개척해 놓은 시장의 상당부분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전남 지역의 피해가 더 좋지 않은 것은 다수의 종오리 농장이 피해를 보았다는 점이다. 많은 농장이 좁은 지역에 밀려 있다 보니 고병원성 AI의 발생 농가의 반경 500m 내 살처분 대상 농가에 많은 종오리 농장도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종오리 농장이 피해를 봄으로써 피해를 복구할 때까지 새끼오리의 공급량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새끼오리의 가격상승은 물론 전체 오리 사육 규모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

새끼오리를 농장에 넣고 싶어도 넣을 오리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종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새끼오리의 공급 물량 감소는 오리 공급 부족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종오리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오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더 오랜 시간일 걸릴 수 있다.

년 초에 일어난 조류 인플루엔자란 큰 악재로 인해 올해 오리고기 수급 상황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예측하기 힘든 수급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오리 사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3. 장기적인 질병 관리의 필요성

고병원성 AI로 발생하는 생산과 수급에 대한 문제 이외에 이후의 질병관리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오리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방역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더불어 2003년을 시작으로 2~3년 끌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런 질병이 연례화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만 방역과 질병 관리에 관심을 두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병원성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할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축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업화,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한 농가당 사육하는 가축의 마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사육하는 가축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사육하는 가축의 밀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질병이 더욱 빠르고 쉽게 전파된다.

오리라고 예외 일 수는 없다. 최근에 급격하게 사육수가 증가하면서 질병에 의한 피해가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2010년 하반기에 살모넬라와 대장균증으로 수많은 오리가 폐사한 사실을 상기해 보더라도 이제 방역과 질병 관리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오리산업보다 오래 전부터 발달했고 이미 고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양돈산업과 양계산업(산란계, 육계)을 통해 오리 산업이 질병으로 인해 겪게 될 수도 있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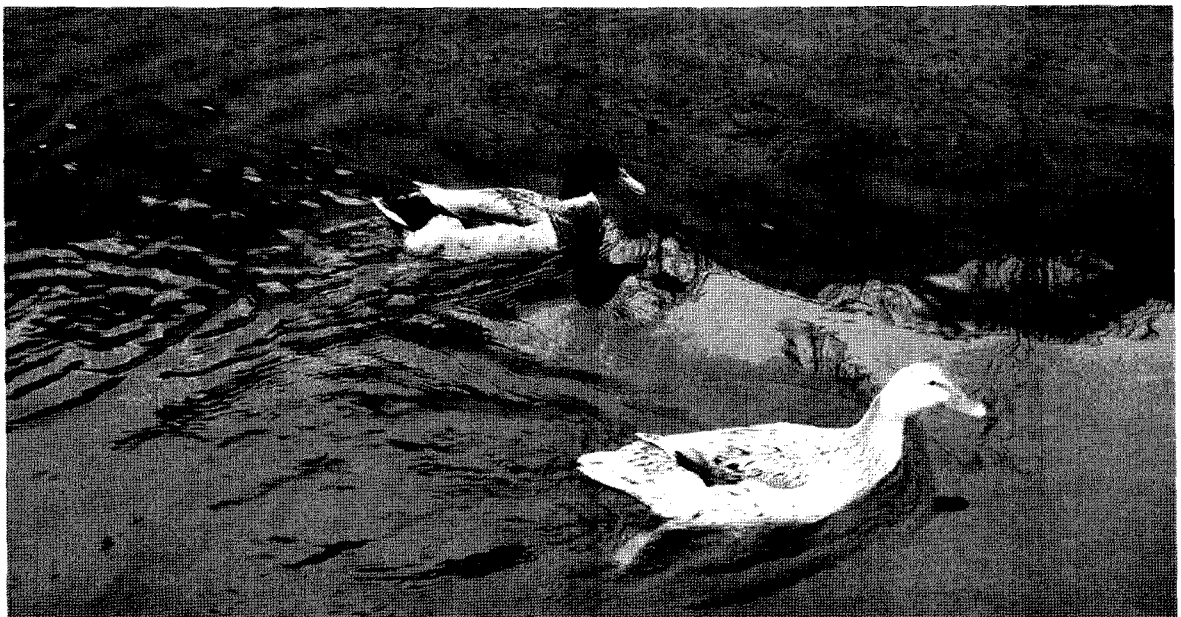
이들 산업의 경우, 현재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또한 농장에 상재하고 있는 소모성 질병들이 계속해서 가축의 생산성을 갇아 먹어 보이지 않는 피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어, 양돈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퍼져있는 PRRS(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의 경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농가에게 주고 있다.

거의 모든 양돈 농장에 이 질병이 퍼져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며, 농장에서 몰아내는 데 막대한 노력과 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양계 또한 양돈과 다르지 않다. 감보로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콕시듐증 등의 질병이 농장에 계속해서 발병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문제는 고병원성 AI도 발병의 원인체가 바이러스인 것처럼 농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질병들이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병이란 데에 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점은 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 속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기생충의 경우 직접 죽여 없앨 수 있는 약품이 존재하지만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치료제가 없어 한번 질병이 들어오면 가축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바이러스라는 병원균은 돌연변이가 워낙 빨리, 자주 일어나 변종이 끊임 없이 등장한다. 지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병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변이를 일으켜 강력하고 파괴적인 질병으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오리에 양돈과 양계와 같이 전국적인 소모성 질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모성 질병이 언제 어디서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놓지 않을 수 없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고병원성 AI만을 보더라도 한번 질병이 농장 내로 들어오면 견잡을 수 없다. 따라서 질병이 농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설령 질병이 농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발병을 막을 수 있도록 오리의 면역체계를 강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항생제를 사료 내에 첨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전히 방역과 오리의 면역력을 통해서만 질병을 방어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질병이 농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방역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리의 면역력을 길러 줄 수 있다면, 농장의 안과 밖에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철통 같은 방어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며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이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고병원성 AI로 인해 발생 농가를 비롯하여, 오리산업 전체, 연관 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독 오리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올해의 모든 산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앞으로의 수급상황을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공급적 측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병원성 AI란 큰 악재로 도약을 준비하던 오리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도 피해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방역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다. 이런 관심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가을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아직 오리의 경우 닭과 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의 수가 많지 않고, 강도 또한 크지 않아 피해가 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축종과 같이 언제 새로운 질병이 홀연히 나타나 큰 피해를 입힐지 모른다.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미리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방역의 수준은 더욱 높여야 하며 오리의 면역력을 올리는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질병은 언제 어느 때고 찾아 올 수 있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고병원성 AI를 통해 질병의 위험성을 심분 자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실한 질병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